

COP¹ 27 주요 내용과 ESG 이슈

December 2, 2022

1. 배경

UNFCCC²의 제27차 당사국 총회(이하 ‘COP’)가, 이집트 샤름 엘셰이크에서 2022. 11. 6. 부터 2022. 11. 18.까지 약 2주간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교토의정서의 17차 당사국 회의, 파리 협정의 제4차 당사국 회의 및 75차 부속 기구 회의도 동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COP는 특히 기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성격이 강조되었으며, 합의문 역시 “샤름 엘셰이크 이행 계획”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COP에서는 추가적인 결정보다는 파리 협정과 제26차 당사국 총회 글래스고 기후 협약의 재확인 및 기후 행동의 개선과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하는 선언적 합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몇 가지 결정만을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미래 에너지 투자와 수자원 및 삼림 자원, 식량자원과 생태계의 보호, 보존, 복원, 지역사회 지속가능성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를 위한 금융 지원 역시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아래에서는 COP 정상 회의와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ESG 이슈를 분석하였습니다.

2. 주요 이슈

(1) 탄소배출 감축 외 기후변화 관련 환경 이슈의 확대

이번 COP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주제였던 탄소배출량 감축과 재생에너지, 탄소중립 외에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메탄 등) 배출량 감축, 수자원, 해양, 농업, 숲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으며 종합적 환경 이슈의 해결을 위해 당사국과 이해관계자가 함께 노력할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¹ Conference of the Parties,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²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UN 기후변화협약)

특히 정상 회의에서는 공정 전환(정의로운 전환, Just Transition), 식량 안보, 기후와 개발을 위한 혁신금융, 미래 에너지 투자, 물 안보, 기후변화와 취약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6개 라운드테이블에서 각 주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으며, 합의문 역시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수자원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해양, 숲, 농업을 별도의 장으로 적시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에 해당 이슈들을 고려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협력을 위해 해양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화를 2023년부터 격년으로 진행하고, 농업 및 식품안전에 관한 온라인 포털을 설립하는 등, 향후 협력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2) 공정 전환의 강조

정상 회의 및 합의문은 이른바 ‘공정 전환’, 또는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많은 논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탄소 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에 있어 공정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으로, 탄소의존적인 지역과 근로자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비용을 부담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파리협정에도 이러한 공정 전환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으며, COP 24에서는 이를 다시 한번 강조하여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에 공정 전환을 고려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국 정상은 취약지역에서의 공정 전환을 위해 선진국이 지원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하였으며, 합의문 또한 대부분의 의제에서 공정 전환을 언급하여 기후변화 대응에서 사회적 후생 및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정하고 포용적인 전환 이행의 강화를 서두에 밝혔으며,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및 지구 온난화 완화에 있어 공정 전환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별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계획에 있어 사회적 보호가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3) 금융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촉구

합의문에 따르면 저탄소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4~6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투자 수요는 더 크나, 선진국의 공동 지원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고 기후 금융 지원은 필요에 비해 그 규모가 적습니다.

이에 당사국들은 선진국에게 재정적 지원, 기술 이전과 역량 지원을 통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다자간 개발은행 및 국제 금융기관의 기후금융 개발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 관련 금융의 접근성을 높일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4)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따른 손실과 피해(Loss & Damage) 대응 기금 마련

이번 COP에서는 COP 최초로 손실과 피해에 대한 대응 자금 조달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였으며, 기후변화의 부정적 효과에 따른 손실과 피해 문제를 대응하는 기금을 창설하고 그 운영 방안을 차년도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연구와 지원 역할을 하는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사무국도 2023년도까지 설립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전망 및 기업의 ESG 과제

(1) 기후변화 관련 환경 이슈의 확대

환경 이슈는 대부분 탄소배출량 감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의 환경 이슈는 탄소배출량 감축 외에도 기업의 영업 환경에 따라 자연자원, 생물다양성 등 생태계 보전에 관한 다양한 이슈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ESG와 관련된 이니셔티브 및 평가기관 역시 이러한 이슈를 주요하게 다루고 있으며, 따라서 기업들은 탄소배출량 감축과 더불어 이러한 이슈들 중 해당 기업에 밀접하게 관련된 이슈를 파악하여 ESG 경영의 일환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KCGS(모범기준)	MSCI ESG Rating	Carbon Disclosure Project
환경 모범기준 6장에서 생태계 보전 항목 제시 • 자연자원 관리 • 생물다양성 보전 • 산림생태계 보전 • 해양생태계 보전	ESG 리스크 노출 평가 • 지리적 평가 시 한국의 생태계 리스크를 낮지 않게 평가 Biodiversity & Land Use • 운영 지역에서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라 평가비중을 기업 개별적으로 달리 평가	기후변화 외 물, 삼림에 대한 각각의 공시 및 평가기준 제시

(2) 기후변화 외에 ESG 전반 영역으로 중요성 확장

공정 전환 이슈의 부상은 탄소중립 이행에 있어 또다른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국가적 고려 뿐만 아니라 기업 수준에서도 사업포트폴리오 재편 시 공정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넷제로(Net-Zero) 및 탄소중립 계획의 수립 시, 기존 사업장과 근로자의 처우, 협력사 재선정에 있어서의 동반성장, 지역사회 관계 이슈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ESG의 “사회(Social)” 영역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 및 사회 각각의 이슈에 대한 과제 수립 시, 연계되는 리스크는 없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3) 신사업 기회 포착 및 중요 과제 도출에의 활용

COP에서는 금융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기후금융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COP에서는 국제적 차원에서의 금융지원에 관하여 논의하였으나, 국내에서도 조만간 이러한 기후금융 지원에 관한 국제적 흐름을 따르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소노미를 통한 기후금융은 지속적으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이며, 그린수소 사업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 지원이 예상됩니다.

특히 ESG 관점에서 기후변화 완화 및 지속가능한 소비, 식량 및 수자원의 지속가능성과 관련된 사업은 중요한 위험 요소이면서 동시에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ESG와 관련된 경영전략 수립 및 중요 과제 도출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부록> COP 27의 주요 내용

(1) 정상 회의

각국 정상은 정상 회의에서 파리협정에 따라 모든 국가가 행동할 책임이 있음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공정 전환, 식량 안보, 기후와 개발을 위한 혁신금융, 미래에너지 투자, 물 안보, 기후변화와 취약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6개의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라운드테이블	주요 결론
공정 전환	- 공정 전환을 위해 선진국의 혁신금융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지원 전략 개발 필요 - 안정적이고 저렴한 청정 에너지를 통한 포용적 에너지 전환 강조 - 공정한 전환에서 CBDR 원칙³ 및 국가별 사회경제적 환경 고려
혁신 금융	- 공적금융은 기후변화 대응의 주요 재원이며, 추가적으로 사적금융과 이를 위한 정책적 개선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해야 함 - 양자간·다자간 개발은행의 광범위한 기후금융 역할 가능성 강조 및 다자간 개발은행의 기후 프로젝트 확대를 위한 개혁 필요성 - 시의성있고 공평한 금융 접근을 위한 기존 장애 요소의 제거
미래에너지 투자 : 그린수소	- 국제적 협력의 중요성 강조 - 공공조달 및 재정 인센티브 지원 등 그린수소 생산 및 사용을 촉진하는 정책 등, 그린수소 로드맵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통합이 필수적 - 다자간 개발은행, 개발금융기관 및 시중은행의 녹색금융에 저탄소 수소 포함 및 차등 이율 등 인센티브 개발 권장
식량 안전	-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한 분야 중 하나임과 동시에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재생 농업·무역 제한 감소·소비 패턴 변화·대체 단백질 등의 식량 시스템 개선은 기후변화 대응의 초석이 될 것임 - 이는 재원을 필요로 하며, 재원 조달을 위해 혁신적 금융, 데이터 및 디지털 인프라, 광범위한 연구개발, 농장 관리기술 향상 등의 기후회복 식량 시스템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함
수자원 안전	- 다자간 협력을 통한 수자원 정책이 기후정책에 반영되어야 하며, 수자원 관련 협약과 절차의 이행이 확대되어야 함 - 기후변화와 수자원 안전의 상호의존성에 대한 국민의식 제고, 지속가능한 물 관리 및 수질 관련 기후 적응을 위한 기후탄력정책이 중요함 - 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물 의제와 관련 정책을 환경 및 경제 의제 전반에 걸쳐 강조해야 함
기후변화와 취약 커뮤니티의 지속가능성	- 기후 변화 관련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은 지속가능발전의 맥락에서 접근할 필요 - 기후금융 확대 및 기후금융 접근의 개선 필요 - 지역사회가 현지 지식을 바탕으로 인도주의 기구에 행동지침을 제공해야 함

³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 국제 환경 논의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차별적인 의무 체계를 의미하는 것

(2) COP 27의 주요 합의내용 (샤름 엘셰이크 이행계획)

- ① 합의문에서는 먼저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기존 협약 및 결정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글래스고 기후협약의 재확인
 - 국제협약과 파리협정의 이행을 포함한 다자주의 협력의 중요성 재확인
 -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과 소비, 생산 패턴으로의 전환 및 교육의 중요성 언급
 - 기후변화 대응 조치에 있어 인권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인정, ‘기후 정의’의 중요성
 - 식량 안전 보호 및 빈곤 종식의 우선순위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따른 식량생산 시스템의 취약성 인식
 - 수자원 및 물 관련 생태계의 보호, 보존 및 복원의 중요한 역할 인식
 - 연계된 글로벌 위기인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을 해결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과 자연과 생태계의 보호, 보존, 복원 및 지속 가능한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
 - 기후변화의 영향이 에너지 및 식량위기를 가속시키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농업으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 등 기후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음을 인식
- ② 또한 각 의제에 따라 합의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항은 중요성의 인식이지만, 일부 새로운 결정사항도 있어 굵은 글씨로 표시하여 두었습니다.

의제	주요 합의사항
I. 과학과 긴급성	• UNEP⁴의 2022 적응 격차 및 배출 격차 보고서, WMO⁵의 기후상태에 관한 지구/지역 보고서 확인 • 기온 상승의 1.5°C 제한을 위한 추가 노력 필요 재확인 • Tipping point 등 기후변화가 지구 빙권에 미치는 영향 이해 필요성 인식
II. 목표와 이행 강화	• 목표 강화 및 공정하고 평등하며 포용적인 전환 이행 • COP 27 참여 국가 및 정부 수장들의 기후 행동의 개선 및 가속화
III. 에너지	• 저배출 및 재생에너지 증가, 에너지 공정 전환 파트너십 등 협력적 행동을 통한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필요성 강조 • 국가 상황에 맞게 에너지 혼합 및 시스템을 다양화하는 과정에서 저배출 및 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청정 에너지 혼합 개선의 중요성 강조, 공정 전환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인식
IV. 완화	• 기온 상승의 1.5°C 제한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2019년 수준에 비해 43%의 신속하고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이 필요함을 인식 • 2030년까지 메탄을 포함한 CO2 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조치 재강조 • 파리협정 달성을 위한 자연과 생태계 보호, 보존 및 회복 • 사회적, 환경적 보호와 더불어 산림 및 육상, 해양 등 자연 및 생태계 보호, 보존 및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 • 이행조치에 있어 경제적, 사회적 긍정적 영향의 극대화와 부정적 영향 최소화 중요성 인식, 이행조치의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 관련 결정 채택 환영

⁴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유엔환경계획

⁵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세계기상기구

V. 적응	• IPCC 6차 보고서⁶에서 제기된 현재 적응 상태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우려 • 적응력 및 탄력성 강화, 취약성 감소를 위한 전환적 접근방식 채택 촉구 • 선진국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응답하도록 기후금융, 기술 이전 및 적응력 구축 촉구 • 물 및 수자원 생태계의 보호, 보전, 회복의 중요성 강조
VI. 손실 및 피해	• IPCC 6차 보고서에서 제안된 경제적, 비경제적 손실에 관하여 손실 및 피해에 대한 적절한 하고 효과적인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 • 개발도상국의 부채 부담 증가와 지속가능성 저해로 인한 손해 및 손실과 관련된 재정적 비용에 대해 깊은 우려 • 기후변화에 따른 손실 및 피해에 대응하는 기금 설립에 관한 결정들을 환영하며, 산티아고 네트워크가 제도적 체계를 확립하여 완전한 운영 환경을 구현하는 것을 환영, 2023년까지 산티아고 네트워크의 사무국을 선정하기로 결정한 것을 환영
VII. 조기 경고 및 체계적 관찰	• 개발도상국에서의 지구 기후 관찰 시스템에 존재하는 격차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 • 2022년 3월 23일 향후 5년 동안 극심한 날씨와 기후 변화에 대한 조기 경고 시스템을 통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는 것을 강조 • 조기 경고 시스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제금융기구와 금융 메커니즘 초대
VIII. 이행 – 공정한 전환으로의 경로	• 환경 위기에 대한 지속가능하고 공정한 해결책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미있고 효과적인 사회적 대화와 참여에 바탕을 두며, 온실가스 저배출 사회로의 전환은 지속가능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기회를 제공함을 확인 • 에너지, 사회경제, 인력 등을 포함한 공정하고 공평한 전환 수단은 국가별 개발 계획에 기반해야 하며, 전환과 관련된 잠재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보호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
IX. 자금조달	• 2050년 넷제로를 위해서는 2030년까지 재생 에너지에 연간 약 4조 달러를 투자해야 하며, 저탄소 경제로의 글로벌 전환을 위해서는 매년 최소 4조~6조 달러의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 이를 위해 금융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정부, 중앙은행, 상업은행, 기관투자자 및 기타 금융기관의 참여가 필요 • 2030년 이전까지 개발도상국에서 필요한 지원은 현재 약 미화 5조 8천억~5조 9천억 달러로 추산됨 •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달러를 공동으로 동원하려는 선진국의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선진국의 목표 달성을 촉구 • 선진국의 재정적 자원, 기술 이전 및 능력 구축을 통해 높은 수준의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 • 다자간 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관의 주주들에게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기후금융을 지원하도록 장려 • 향후 협약 및 파리협정 이행과 관련된 개발도상국의 요구를 확인하고, 선진국은 녹색기후기금의 2차 보충을 위한 자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
X. 기술 이전 및 배포	• 기술집행위원회와 기후기술센터의 2023년부터 2027년까지 공동 작업 관련, 실행을 지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를 초대하며 최종 보고서에서 발견한 사항을 인정하고, 보고서에서 파악된 주요 문제점을 글로벌 현황 조사 결과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결정 • 개발도상국에서 식별되고 우선순위가 지정된 활동과 같은 관련 활동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61차 세션(2024년 11월)에서 기술 이전에 관한 Poznan 전략 프로그램을 계속 검토하도록 한 부속기구의 미래지향적 결론을 환영

⁶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

XI. 역량조성	개발도상국의 역량 필요성 및 선진국의 장기적 국가 주도의 역량 조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 언급
XII. 현황 조사	장기적인 글로벌 목표의 두번째 주기적 검토 보고서 채택
XIII. 해양	2022년 해양과 기후 변화 대화의 결과와 핵심 메시지를 환영하며, 향후 대화는 2023년부터 2년마다 당사국이 선정한 2명의 공동 진행자가 진행하게 될 것으로 결정 - 각 당사국이 국가 기후 목표 및 이러한 목표의 이행에 대해 해양 기반의 행동을 고려하도록 장려
XIV. 삼림	- 개발도상국에 대한 적절하고 예측가능한 지원 제공의 맥락에서 당사자들은 국가 상황에 따라 삼림 손실의 속도를 낮추고, 중지하고, 역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함 - 각 당사국이 자연 기반 또는 생태계 기반 접근 방식을 적절히 고려하도록 장려
XV. 농업	농업 및 식품 안전에 관한 기후행동의 이행에 관한 샤름 엘셰이크 4년 공동 작업의 개시와 이에 따른 샤름 엘셰이크 온라인 포털의 설치를 환영
XVI. 이행 강화 : 비당사국 이해관계자의 참여	- 기후 변화에 관한 협약, 교토 의정서 및 파리 협정의 틀 내에서 당사국 외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인정 - 기후 변화에 대처하고 대응하는데 있어 원주민, 지역 사회, 시민 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다차원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의 긴급한 필요성을 강조 글래스고 프로그램에 따른 액션플랜(Action for Climate Empowerment) 채택 - 기후 활동에 대한 여성의 전체적이고 의미 있고 동등한 참여를 장려 - 성별 관련 행동 및 액션플랜 이행을 위한 당사국의 개발도상국 지원 장려 - 당사국이 기후 정책 및 행동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을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며, 적절한 경우 젊은 대표자와 협상자들을 국가 대표단에게 포함시켜 세대간 형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기후 체계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 - 당사국 및 비당사국 이해관계자가 마라케시 글로벌 기후 활동을 위한 파트너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장려 27차 당사국 의장과 고위급 대표들이 유엔지역경제위원회와 공동으로 기후활동 자금 조달과 지속가능한발전목표 이니셔티브를 위한 5개 지역 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환영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송수영 변호사 | T. +02-316-1636 | E. sysong@shinkim.com |
| • 장윤제 전문위원 | T. +02-316-2895 | E. yjjang@shinkim.com |
| • 이창원 변호사 | T. +02-316-4623 | E. cwrhee@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

서울시 종로구 종로3길 17 디타워 D2 23층 (우)03155 T. 02-316-4114 <https://www.shinkim.com>
